

# “상담은 내가 그사람 되는 것”

## 신행현장

### 조계사 상담실장 박원각성 보살

“어~에, 그러시면 한 번 나오시죠. 그리고 눈을 좀 낮춰보세요.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전화 수화기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지 귀가 아플 지경이다. 하지만 박원각성(61) 보살의 얼굴은 만족스런 표정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노크소리와 함께 한 지체장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첫 눈에 무엇인가 알아차렸음인지 박 보살의 얼굴엔 일시 긴장감이 스친다.

“결혼상담을 하러 오셨군요.” “예, 아가씨들이 저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장기는 가야겠는데...”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적어도 몇 번은 만난 사람처럼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조건 맞는 아가씨들은 성한 사람을 원하고... 아가씨를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어눌한 말이었지만 박 보살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다 때가 있으니 조금씩 생각해 보세요. 얼굴표정이 밝은 것은 보니 어렵지 않겠네요.”

조계사 신행상담실 실장 박원각성 보살은 하루 평균 5명의 내담자들과 얼굴을 맞댄다. 13일 오후

계속되는 결혼상담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결혼문제로 부부·자녀문제, 신행생활에 이르기까지 상담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전화상담도 최소 하루에 8건 이상, 10시에 상담실에 도착해 상담에 응하다보면 점심 때를 놓치는 것은 약과이다. 1시간 이상 수화기를 통해 계속되는 신세한탄을 들어주고, 상담하러 와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다보면 퇴근할 무렵에는 온 몸

### 하루 평균 15차례 상담 소년소녀가장 돕기도

이 파김치가 된다. 사람을 상대하고 게다가 구구절절할 사정애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설득까지 해야하는 일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박 보살이 봉사활동으로 조계사 상담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96년부터. “92년에 중랑구에서 지역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소년소녀가장을 찾아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었죠. 처음엔 뜻있는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막상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상담이야말로 가장 좋은 포교’라고 생각한다는 박원각성보살(오른쪽)이 내담자와 결혼상담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운슬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지요.”

93년 서울시로부터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상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불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던 시절이었다. 시어머니 성화에 못이겨 일년에 서너 차례 절에 다니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아버지 49재를 지내면서 문득 불교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당시 무진장 스님이 지도하던 경전공부 모임인 ‘국청회’와 조계사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96년 조계사 카운슬러대학을 1기생으로 졸업하고 신심 깊은 불자 상담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상담하다가 같이 울 때도 있었어요. 듣는 사람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은 가

장 급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잊어버리고 하

조. 상담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 보살은 상담이야말로 가장 좋은 포교라고 믿고 있다. 상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소신 때문이다.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한 불자들의 모임인 ‘지혜의 등불’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곧 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우주섭리 꼭 알아내겠다’ 기복 벗어난 초발심내자



반월스님  
부산  
연승사 주지

불법의 깊고 깊은 정각의 세계는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어떠한 강줄기도 결국은 바다에 이르러 큰 바다의 품에 들어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중생도 결국은 깨달음의 장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사자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법의 큰 바다에 들기는 어려우므로 초발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 발심한 인연공덕은 지고지순해서 그 가치는 무량광이라 했고 온 법계의 가장 수승한 공덕과 동등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써 보시한다고 해도 한번 초발심을 낸 사람의 마음 공덕에 비하면 발골에도 미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발심의 마음을 내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번민, 고

### ‘나만의 이익’ 생각 말고 일체가 더불어 복되게

뇌, 집착, 한계 등 일체를 벗어나 우주법계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초발심은 당장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에서 탈피하려는 소극적인 발심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를 알아내어 현재의 고통과 인연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려는 적극적이고 대의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즉 나 하나만을 이익되게 하려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일체를 더불어 복되게 하겠다는 화해중생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발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다짐생애에 쌓여 있는 업식을 씻어 내고자 정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은 흔히 ‘여태까지 지은 죄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단계 나아가 내가 지은 것으로 오는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선업을 쌓아 청정무구한 마음을 드러내겠다는 적극적인 발심을 내고 곧바로 행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업을 쌓고 실천을 하

는 지혜가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길로 바로 들어서도록 길잡이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밝혀나간다는 다른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실천해 나가면 나에게 가득 쌓인 습기가 제거되어 현재 나에게 오는 어떠한 인연이라도 수용하는 대공정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경전에 중생을 비유하기를 바다 가운데서 목이 마르면 바다 물을 마시는 존재라고 했듯이 우리는 살다가 괴로우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바다물을 마셔 갈증을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생로병사를 거듭하며 육도윤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주 법계의 진리는 원용자재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급급한 마음을 쉬고 원용자재한 불법의 경지를 터득하여 근본을 해결하려는 큰 욕심, 즉 진정한 초발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미혹들을 정화해주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물을 건너는 뱃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문입니다. 법문입니다. 여러 분들이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가며 습기를 제거하고 자신의 미혹을 떨쳐 나간다면 언젠가는 염불이나 기도는 물론 불교라는 큰 틀까지도 벗어나는 대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생에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듣고 번뇌 망상을 여의어서 언젠가는 큰 바다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초발심의 마음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신행 캘린더

2월 22일 (목)

■선덕사 집단상담 수련회=광주 선덕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24일 오전 12시까지 ‘참 만남과 자아실현을 위하여’란 주제로 집단상담 수련회를 병행한다. 062-263-4660

2월 23일 (금)

■조계사 신중기도=조계사는 25일까지 대웅전에서 주지 지홍스님을 모시고 신중기도를 병행한다. 02-732-2115

■강남 포교원 수계교육=강남포교원은 28일까지 수계를 받고자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수계 교육을 실시한다. 02-539-2631-4

2월 24일 (토)

■불교사건연합회 사찰순례 및 정기총회=대한민국불교사건연합회는 25일까지 무박 2일간 전남 강진 백련사와 무외사에서 사찰순례 및 정기총회를 병행한다. 02-764-7348

■목포불교대학 초청법회=목포불교대학은 오후 2시 불교대학 4층 강의실에서 제주 남국선원장 해국스님 초청 법회를 병행한다. 또한 25일 오후 6시 목포 봉황예식장에서 불자연예인 김병조씨 초청법회도 병행한다. 061-279-0577

■진여회 방생법회=조계종 진여회는 25일까지 한산사에서 방생법회를 병행한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조계사 사당. 02-821-3242

■한울총국대인만 기원법회=한국 불교단체총연합회는 오후 4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태민안 기원법회를 병행한다. 02-734-5221

■동방불교대 졸업식=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은 오후 2시 태고사 설법전에서 졸업식을 병행한다. 02-745-2000

2월 25일 (일)

■창원불교청년회 3주년 창립법회=창원불교청년회는 오후 2시 시민의 법당 마하연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한다. 055-267-2307

■원정각 대종사 7주기 대례공양=서울 밀각심인당은 오후 2시 원정각 대종사 열반 7주기를 맞아 추모불사 및 대례공양을 병행한다. 02-2292-8730

2월 27일 (화)

■원운스님 화엄경 금니 사경전=백송사는 3월 5일까지 예술의 정당 서예관에서 원운스님 화엄경 금니 사경전을 개최한다. 055-962-5662

■중앙승가대학 입학식=중앙승가대학교는 오후 2시 김포학사 대강당에서 2001학년도 입학식을 병행한다. 031-980-7713

### 생활속의 불교

### 저 언덕에 이르는 길

부처님의 심대제자에겐 한 가지씩 별명이 있다. 두타제일, 지혜제일, 신통제일, 다문제일 등. 가섭존자는 의 식·주에 집착하지 않는 두타의 행으로, 사리불은 지혜로, 목건련은 불가사의의 능력으로 그러한 별명을 얻었는데, 수행 방편의 다양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심대제자들이 한 가지 방편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다. 또 방편의 덕으로 심대제자의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니다. 각자 인연 도리에 따라 좀 더 익숙한 방편을 택한 것이다. 그들의 수행은 오로지 삼법인(三法印),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철저한 실천 그것이었다.

불법은 실천으로 일관한다. 부처님 말씀이

나 역대 선지식의 가르침 어느 것을 보아도 실천을 떠난 것은 없다. 팔만사천 법문도 한결같이 실천을 역설한다. 경전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터득하게 된다’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언어도단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만이 진리를 터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불법에서 실천을 배다면 다만 철학이나 사상으로 남게된다. 고로 불자로서 실천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처님을 인친(人親)의 스승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로 격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자리에서 ‘사상’의 자리로 낮추어 평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경 울 론 삼장은 다 행을 위한 것이다. 팔만사천 경전을 가로 세로로 꿰고 달달 원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자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그렇다고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 강물에 대해 소상히 아는 것만으로 내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실천에 옮기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건너편 언덕에 이르러 보면 그냥 다리를 건널 일이지, 다리의 구조나 재료 공법 따위를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리는 건너가라고 놓여진 것이지 감상하려고 놓인 것이 아니다.

도피안(倒彼岸)은 실천이다. 龍眼

## 제50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 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제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문큰스님 : 지관 (가산문화원 원장) 인환 (동국대 교수) 정관 (전 범어사 주지) 성오 (범어사 주지) 세민 (해인사 주지) 각성 (화엄사 주지) 홍선 (중앙승가대 교수) 금담 (극락선원 원장) 법희 (감로사 회주) 헤인 (약천사 회주) 석성우 (과계사 주지) 철우 (영선유원 원장) 혜중 (감로사 주지)

- 삼천배유나 : 철우 큰스님
- 인례사스님 : 보안, 변륜, 효종, 현담, 경법, 경성, 경원, 안지성, 경중, 경지, 경소, 종명, 화용, 도현, 탄준, 정찬, 정우

- 일 시 : 불기 2545년 음력 2월 10일~14일 (양력 3월 4일~8일) 4박 5일
- 동참금 : 3만원 (위해 한 분 모시는데 5천원) \*회향날 방생합니다.
- 지참물 : 백미·꽃·과일 약간씩 (주무실분은 담요 한장)
- 계좌번호 : 조흥은행 409-04-472968 (예금주: 감로사)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주지 혜 총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 초청의 말씀

-출판기념법회 ‘광덕스님 시봉일기 1,2’-

강호 제현의 건승하심과 광휘를 지속하며 평소 제현께서 주지이신 송암 스님과 우리 도피안사에 적극적인 협력과 뜨거운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점에 대하여 저희 신도 일동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올리옵니다. 금번 우리 도피안사 주지이신 송암지원 스님께서 스승님인 금학당 광덕 대선사님의 교화가풍을 책으로 엮어 ‘광덕스님 시봉일기 1,2’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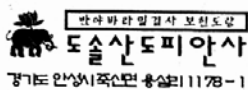
효의 위덕이 날로 쇠미해져 가는 오늘날에 주지스님의 이러한 값진 효행이야말로 참으로 뜻 깊은 장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신도 일동은 경건한 마음으로 개산조사이신 대선사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주지스님의 출중한 효행을 본받을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아래와 같이 조출한 출판기념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시어 효사상 선양 모임을 한층 크게 빛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아래-
- 일 시 : 2545(2001)년 3월 1일(목:국경절) 10시 30분
- 장 소 :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대웅전
- 연락처 : 전화 031-676-8700 전승 031-676-8704 E-mail dopiansa@kornet.net

\*서울지역은 당일 새벽 6시 전부터 9시에 도피안사행 버스 출발 \*장소 관계로 부득이 화원은 사양하게 되었으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 도원 김경진, 자심문 최숙희, 선학보살: 자신 신영관, 부회장: 능허 이상훈, 한국 최형재, 법륜 이원우, 해안 최정일, 혜연 최정수, 해양 이현성, 도수 김연성, 홍익희장: 평등심 신승실, 지장희장: 공여행 김문자, 보문희장: 도국 김석현, 대원희장: 도우 원광서, 보현희장: 연지영 정순연, 문수희장: 향공 이기호, 구도희장: 본각원 박민호, 안양희장: 원광 이나수, 반야희장: 해과 윤병호(죽산 지파), 안국희장: 해안 원종주(안남 지파), 향원희장: 보현 나덕현, 용인희장: 중주 박성근, 금강희장: 덕운 구본일(창녕도인), 합향장: 평등심, 신승실, 향학희장, 법해 이석우, 이천희장: 도동 권인재, 과천희장: 도일 김규복 및 신도일동 합향장예

동행위원: 능허 이상훈의 부회장 일동, 추진위원회: 해안 최정일의 각 회장 일동, 준비위원회: 평등심 신승실의 일동 일동



도솔산도피안사  
경기도 안성시 죽전면 용성리 117번-1